데이터 모델링 이해

■ 데이터 모델링 단계

- 개념적 모델링
- 전사적 관점
- 추상화 수준이 가장 높음
- 업무 측면에서 모델링
- 논리적 모델링
- 정규화를 통해 재사용성을 높임
- 물리적 모델링
- 테이블, 인덱스 등 생성
- 성능, 보안,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

■ 3층 스키마 구조

- 외부 스키마
- 사용자 관점 (집주인)
-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뷰
-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 정의
- 개념 스키마
- 설계자 관점 = 조직 전체 관점(관리인)
-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
- 내부 스키마
- 개발자 관점 (건설 업체)
- 물리적 저장 구조

■ 엔터티 특징

- 유일한 식별자
- 2개 이상의 인스턴스
- 2개 이상의 속성
- 다른 엔터티와 최소 한 개 이상 관계
- 업무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집합

■ 엔터티 종류

■ 유형 / 무형 (= 물리적 형태 존재 여부)

- 유형 엔터티 : 물리적 형태가 있음

- 개념 엔터티 : 물리적 형태가 없음

- 사건 엔터티 :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생성

■ 발생 시점

- 기본(key) 엔터티 : 독립적 생성

- 중심(main) 엔터티 : 기본 엔터티로부터 발생되고 행위 엔터티를 생성

- 행위 엔터티: 2개 이상의 엔터티로부터 발생 - 지속적으로 정보 추가됨 (데이터 양 多)

■ 속성 특징

- 업무에서 관리되는 정보

- 하나의 값만 가짐

- 주식별자에 함수적 종속

■ 속성 종류

■ 분해 여부 : 단일 속성 / 복합 속성 / 다중값 속성(엔터티로 분해)

■ 특성 : 기본 속성 / 설계 속성 / 파생 속성

■ 식별자 종류

■ 대표성 여부 (유일성&최소성)

- 주 식별자 : 엔터티 내에서 구분자 역할을 하며 타 엔터티와 참조 관계를 연결할 수 있음

- 보조 식별자 : 엔터티 내에서 구분자 역할을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지 못해 참조 관계 연결 불가능

■ 생성 여부

- 내부 식별자 : 엔터티 내부에서 스스로 생성됨 ex) 부서코드, 주문번호, 종목코드

- 외부 식별자 : 타 엔터티와의 관계로 타 엔터티로부터 받아옴 ex) 계좌 엔터티에 회원아이디

■ 속성의 수

- 단일 식별자 :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됨

- 복합 식별자 : 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됨

■ 대체 여부

- 본질 식별자 : 업무에 의해 생성됨

- 인조 식별자 : 원조 식별자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생성됨

■ 정규화

- 모델의 유연성 향상시킴

- 제1정규화 : 속성의 원자성 확보

- 제2정규화 : 부분 함수 종속성 제거

- 제3정규화 : 이행 함수 종속성

- BCNF : 후보키가 기본키를 종속시키면 분해

■ 반정규화

- 데이터 중복 허용

- 조인을 줄이는 방법

- 조회 속도 향상

■ 테이블 반정규화

| 병합 | 1:1 관계 테이블 병합 | 1:1 관계를 통합하여 성능 향상 |
|----|----------------|--|
| | 1:M 관계 테이블 병합 | 1:M 관계를 통합하여 성능 향상 |
| | 슈퍼/서브타입 테이블 병합 | 슈퍼/서브 관계를 통합하여 성능 향상 |
| 분할 | 수직 분할 | 컬럼 단위의 테이블을 1:1로 분리하여 성능 향상 |
| | 수평 분할 | 행 단위로 집중 발생되는 트랜잭션을 분석하여 행 단위로 테이블 분리 |
| 추가 | 중복 테이블 추가 | 다른 업무이거나 서버가 다른 경우 동일한 테이블 구조를 중복하여 원격 조인을 제거하고 성능 향상 |
| | 통계 테이블 추가 | 집계 함수를 미리 수행하여 계산해 둠으로써 조회 성능 향상 |
| | 이력 테이블 추가 | 이력 테이블 중에서 마스터 테이블에 존재하는 레코드를 중복하여 이력 테이블에 추가하는 방법 |

■ 컬럼 반정규화

| 중복 컬럼 추가 | 조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복된 컬럼 추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파생 컬럼 추가 | 계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리 값을 계산하여 컬럼 추가 |
| 이력 테이블 컬럼 추가 | 대량의 이력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능성 컬럼 추가 (최근값 여부, 시작일자) |
| | 복합 의미를 갖는 단일 기본키에서 특정 값을 별도로 조회하는 경우 |
| 기본키에 의한 컬럼 추가 | 이미 기본키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일반 속성으로 |
| | 포함하는 방법 |
| 00 기시테 <u>0</u> 2도 이 이 하 권리 초기 | 업무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사용자가 잘못 처리하여 원래 값으로 복구하기 |
| 응용 시스템 오작동을 위한 컬럼 추가 | 원하는 경우 이전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중복하여 보관하는 기법 |

■ 분산 데이터베이스 투명성

: 분할 / 위치 / 지역 사상 / 중복 / 장애 / 병행

■ 분산 데이터베이스 장단점

- 장점
- 신뢰성과 가용성
- 빠른 응답
- 용량 확장 쉬움
- 지역 자치성
- 통신 비용 절감
- 단점
- 관리, 통제 어려움
- 보안 관리 어려움
- 무결성 관리 어려움
- 설계 복잡
- 개발, 처리 비용 증대
- 불규칙한 응답 속도

SQL 기본 및 활용

■ NULL 관련 함수

- NVL(col1,col2): col1 값이 null이면 col2 값을 반환 (ISNULL 함수)
- NVL2(col1,col2,col3): col1 값이 null이 아니면 col2값을, null이면 col3 값을 반환
- NULLIF(col1,col2): col1 값이 col2 값과 같으면 null을, 같지 않으면 col1 값을 반환
- COALESCE(col1,col2,col3,…): null이 아닌 최초의 인자 값 반환

■ SELECT문 실행 순서

FROM → WHERE → GROUP BY → HAVING → SELECT → ORDER BY

■ 문자열 함수

- SUBSTR(str.m.n): str에서 m번째 위치부터 n개 반환
- CONCAT(str1,str2): str1과 str2 결합 [(oracle) | | , (MS-SQL) +]
- TRIM(str) : str의 공백 제거

■ 숫자형 함수

- MOD(num1,num2) : num1을 num2로 나눈 나머지 반환 (%)
- CEIL(num): num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 반환
- FLOOR(num): num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반환
- ROUND(num,m): num의 소수점 m자리에서 반올림
- TRUNC(num,m): num의 소수점 m자리에서 버림

■ DECODE문 구조

DECODE(col,val,result1,result2)

■ CASE문 구조

CASE [expression] WHEN condition THEN result1 ELSE result2 END

■ ROWNUM

- 조회되는 행 수를 제한할 때 사용
- 데이터를 출력할 때 부여되는 순번
- ex) ROWNUM = 1 (O) ROWNUM \rangle 0 (O) ROWNUM \langle = 3 (O) ROWNUM = 2 (X)

■ DROP / TRUNCATE / DELETE 비교

| DROP | - DDL - Rollback 불가능 = Auto Commit - 테이블이 사용한 storage 모두 release - 테이블 정의 완전히 삭제 - 로그 X |
|----------|---|
| TRUNCATE | - DDL - Rollback 불가능 = Auto Commit - 테이블이 사용한 storage 중 최초 테이블 생성 시 할당된 storage만 남기고 release - 테이블을 최초 생성된 초기 상태로 초기화 - 로그 X - 데이터를 빠르게 삭제함 |
| DELETE | - DML - Commit 이전 Rollback 가능 = 사용자 Commit - 사용했던 storage는 release 되지 않음 - 데이터만 삭제 - 로그 O |

■ 계층형 조회 (CONNECT BY)

- START WITH : 시작 조건 (해당 데이터 출력)

- CONNECT BY PRIOR : 조인 조건

- PRIOR 위치가 중요

✓ LEVEL 키워드를 사용하면 Root가 1, 다음 노드는 2

■ 서브쿼리

- SELECT문에 사용 : 스칼라 서브쿼리

- FROM구에 사용 : 인라인 뷰

- WHERE구에 사용 : 서브쿼리

- 연관 서브쿼리 : 서브쿼리 내에서 메인 쿼리 내의 컬럼 사용

■ 그룹 함수

■ ROLLUP

-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인수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짐
- 계층 간 정렬 가능
- ex) GROUP BY ROLLUP(DEPTNO): 부서별 합계 & 전체 합계
- ex) GROUP BY ROLLUP(DEPTNO, JOB): 부서별 합계 & 부서-직업별 합계 & 전체 합계
- ex) GROUP BY ROLLUP(DEPTNO) = GROUP BY GROUPING SETS(DEPTNO.())

- GROUPING SETS
- GROUP BY에 나오는 컬럼의 순서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모두 처리함
- ex) GROUP BY GROUPING SETS(DEPTNO, JOB): 부서별 합계, 직업별 합계
- CUBE
- 결합 가능한 모든 집계 계산
- ex) GROUP BY CUBE(DEPTNO, JOB): 부서별 합계 & 직업별 합계 & 부서-직업별 합계 & 전체 합계 = GROUP BY GROUPING SETS(DEPTNO, JOB, (DEPTNO, JOB), ())

■ 윈도우 함수

- 행과 행 간의 관계 정의
- 순위, 합계, 평균, 행 위치 등 조작
- Group by 구문과 Window function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순위 함수
- RANK() : 동일 순위에 동일 값 부여
- DENSE_RANK() : 동일 순위를 하나의 건수로 계산
- ROW NUMBER() : 동일 순위에 고유의 순위 부여
- 행 순서 관련 함수
- FIRST_VALUE / LAST_VALUE : 가장 처음에/나중에 나오는 값 (MIN/MAX)
- LAG : 이전 행을 가지고 온다
- LEAD : 특정 위치의 행을 가지고 온다 (default = 1 = 다음 행)
- 비율 관련 함수
- CUME_DIST : 누적 백분율 조회
- PERCENT RANK : 행 순서별 백분율 조회
- NTILE(n) : 파티션 별로 전체 건수를 n등분한 결과 조회
- RATIO_TO_REPORT : 파티션 내에 전체 SUM에 대한 행 별 컬럼값의 백분율을 소수점까지 조회

■ 테이블 파티션

- 대용량의 테이블을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에 분리해서 저장
- 입력, 수정, 삭제, 조회 성능 향상
- Range Partition : 값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할
- List Partition : 특정 값을 기준으로 분할
- Hash Partition :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분할
- Composite Partition : 여러 개의 파티션 기법을 조합해서 분할

■ 옵티마이저 조인

- Nested Loop Join
- 하나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먼저 찾고 그 다음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식
- 선행 테이블의 크기가 작은 것을 먼저 찾음
- RANDOM ACCESS 발생 -> 성능 지연 발생
- 선행 테이블의 조건을 만족하는 건수만큼 반복 수행
- 조인 컬럼에 인덱스가 존재해야함
- Sort Merge Join
- 두 개의 테이블을 메모리 공간에 로딩하고 SORT 수행
- 정렬이 완료되면 두 개의 테이블 병합
-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성능 저하
- 기본키와 외래키 관계에서 외래키에 인덱스가 없을 때
- Hash Join
- 두 개의 테이블 중에서 작은 테이블을 메모리에 로딩
- 두 개의 테이블의 조인 키를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 생성
- CPU 연산을 많이 함
- EQUI 조인만 사용 가능한 방법
- 조인 컬럼의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
- 정렬 작업이 없어 대량 배치작업에 유리함

■ Hash Join 절차

- 1)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 필터링
- 2) 선행 테이블의 조인 키를 기준으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해시 테이블 생성
- 3) 1.2번 작업을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행을 수행
- 4) 후행 테이블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행 필터링
- 5) 필터링한 행을 대상으로 후행 테이블의 조인키를 기준으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선행 테이블에서의 해시 함수 반환값과 같은 값을 반환하는 행을 찾음

■ 프로시저와 트리거

| 프로시거 | 트리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CREATE PROCEDURE | CREATE TRIGGER |
| 생성하면 소스코드와 실행코드가 생성됨 | 생성하면 소스코드와 실행코드가 생성됨 |
| EXECUTE 명령어로 실행 | 생성 후 자동 실행 |
| COMMIT, ROLLBACK 실행 가능 | COMMIT, ROLLBACK 실행 불가능 |

- ✓ CHAR(10)으로 컬럼을 생성하고 8개의 문자를 입력하면 나머지 2개는 공백으로 입력됨 VARCHAR는 가변길이 문자열 타입으로 입력한 크기만큼 할당됨 (oracle은 varchar2)
- ✓ count(*) : null을 포함한 행수 계산 count(col) : null을 제외한 행 수 계산
- ✓ WHERE 컬럼명 LIKE '%@ %' ESCAPE '@'
- ✓ FULL OUTR JOIN = LEFT OUTER JOIN UNION RIGHT OUTER JOIN
- ✓ SELF JOIN : 하나의 테이블에서 두 개의 컬럼이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
- ✓ NATURAL JOIN : 두 테이블 간에 동일한 컬럼 이름을 가진 것 모두 출력 (on절 생략 가능)
 동일한 컬럼이 두 개 이상일 경우 JOIN~USING 문장 사용
 Alias 사용 불가능
 두 테이블에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SELECT 테이블명,컬럼명 불가능
- ✓ 서브쿼리는 메인쿼리 컬럼 사용 가능메인쿼리는 서브쿼리 컬럼 사용 불가능
- ✓ SQL server는 null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취급하고 ORACLE은 가장 큰 값으로 취급함
- ✓ ORACLE은 DDL이 수행되면 묵시적으로 자동 COMMIT 수행됨.
- ✓ SQL Server는 DDL 문장도 같이 Rollback 수행됨.
- ✓ ORACLE에서 Column Header의 Alias명이 없는 컬럼명은 대문자로 바뀜, SQL Server는 그대로,

- ✓ 조회는 일반적으로 인덱스가 있는 것이 유리함
- ✓ DML 작업은 테이블과 인덱스를 함께 변경하므로 느려지는 단점이 있음
- ✓ 인덱스 트리 구조 : Root Block, Branch Block, Leaf Block
- ✔ Row Chaining : 하나의 행을 여러 블록에 걸쳐서 저장 =〉조회 성능 감소
- ✓ 옵티마이저 : SQL 실행 계획 수립
- ✓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는 적절한 인덱스가 존재하면 항상 인덱스를 사용함
- ✓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에서 제일 낮은 우선순위는 전체 테이블 스캔
- ✓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는 비용 계산을 위해 다양한 통계정보 사용

✓ PL / SQL 특징

- 변수와 상수 등을 사용하여 일반 SQL 문장을 실행할 때 WHERE절의 조건으로 대입 가능
- Procedure, User Defined Function, Trigger 객체를 PL/SQL로 작성 가능
- Procedure 내부에 작성된 절차적 코드는 PL/SQL 엔진이 처리
- 일반적인 SQL 문장은 SQL 실행기가 처리
- PL/SQL문의 기본 구조로 DECLARE, BEGIN~END 문은 필수, EXCEPTION 문은 선택
- Block 구조로 되어 있어 각 기능별로 모듈화 가능
-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시킴
- 여러 SQL 문장을 Block으로 묶고 한 번에 Block 전부를 서버로 보내기 때문에 통신량을 줄일 수 있음
- 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: 애플리케이션, Trigger, 제약조건
 - * Lock은 병행성(동시성) 제어 기법